

치매와 치매노인 간호중재에 대한 연구 분석

노 국 회*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치매 유병율은 8.2-10.8% 정도로 2000년 약 30만(The Korean association for dementia, 2008)이며 2020년에는 62만인 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Byun et al., 1997), 미국의 경우 National institute on aging(1990)은 4백만의 노인이 알츠하이머형 치매나 치매관련 질환일 것이라고 하였고, Alzheimer's Association(2008)은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율은 약 10%인 450만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영국의 치매유병 대상은 60만에서 2050년에는 120만으로 추정된다(Elizabeth, 2006)고 하여서, 치매는 국내, 국외적으로 재정적 문제와 아울러 사회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치매는 신경세포의 손상으로 인한 뇌중후군으로 대개 만성적이고 진행성이며, 지적능력의 저하에 의하여 지남력이 떨어져 적절한 대응이 어렵고, 결국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Kim, 1999; Park, 2004). 더욱이 우리나라 노령화 속도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양상을 보이며, 이에 따라 치매, 뇌졸중 등의 노인성 질환과 아울러 노인 간호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고조되고 있다. 간호학 분야에서 노인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에 시작하여, 1990년대에 양적 질적인 향상을 보이고 있으

며, 변화하는 노인 간호의 현재와 미래의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들도 증가되고 있다(Jun & Park, 1992; Yang, Kim & Park, 2004; Kim, 2005). 따라서 국 내 외적 해결과제로 다가오고 있는 노인성 치매 대상자의 질적 간호를 위하여, 치매 현상과 치매 간호중재에 관한 이론적, 학문적인 체계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지금까지 이루어진 여러 선행연구들을 분석, 종합하여 그동안 축적되어온 지식 체계의 탐구 경향을 발견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후속연구의 가능한 전략수립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국내 노인 간호 연구 분석을 보면 Lee 등(1998)은 1991-1997년까지 논문 127편을 분석하였고, Kim 등(2002)은 1991-2000년까지의 연구 343편을 개념별로 분석하였으며, 지역사회 간호학회지 중심의 105편을 분석한 연구(Wang et al., 2004), 1997-2003년까지의 국내간호학술지와 학위논문에 발표된 241편을 분석한(Kim, 2005) 연구가 있다. 그러나 치매연구에 대한 분석은 Kim(1999)의 치매노인 가족 연구에 대한 분석이 있으나, 이는 2000년도 이전의 것이며, 또한 치매노인은 노인연구에서 일부분으로 분석되었을 뿐(Wang et al., 2004; Kim, 2005), 치매노인 연구를 분석한 결과는 없다. 그러나 최근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실시가 임박함으로 인하여 치매 대상자를 위한 시설이 증가되고 있고, 가정방문도 예정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병원이나 시설뿐만 아니라, 증가된 시설이나 주간보호 프로그램, 치매노인 가정방문을 통하여 간호 실

* 지역사회간호학회 정회원, 전 군산간호대학 교수(교신처자 E-mail: hoyhww@naver.com)
투고일: 2008년 4월 21일 심사완료일: 2008년 6월 20일

무에서 치매노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치매노인에 대한 간호 분야 연구도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학회지나 학위 논문으로 치매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Yang 등(2004)은 1997년에서 2003년까지의 노인연구 경향분석에서 전체 56편 중 11편의 치매연구를 노인 중재연구에 포함하여 분석한 것을 볼 때, 치매노인 중재연구도 양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차후 더 많이 증가 될 것으로 예측할 수 가 있다.

따라서 최근의 치매와 치매노인 간호중재 경향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선 7개 간호학회지와 노년학회지에 게재된 결과를 분석하여 치매연구 경향을 파악하고, 두 번째로 치매노인에 대한 간호중재 연구의 방법과 효과는 어떠한지를 분석하여 차후 치매간호연구의 방향설정에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목적은 7개 간호학회지와 한국노년학회지에 발표된 문헌을 분석하여 치매와 치매노인 간호중재 연구경향을 발견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치매관련 연구논문의 경향을 분석한다.
 - (1) 연도별 게재지별 빈도를 분석한다.
 - (2) 연도별 연구대상별 빈도를 분석한다.
 - (3) 연도별 설계유형별 빈도를 분석한다.
- 2) 치매노인에 대한 간호중재 연구경향을 분석한다.
 - (1) 중재종류를 분석한다.
 - (2) 연구방법을 분석한다.
 - (3) 중재결과를 분석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7개 간호학회와 한국노년학회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치매와 치매노인 간호중재 경향을 분석하였으나,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고, 8개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은 학위 논문과 그 외 관련 학회지 논문까지는 포함하지 못하여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및 선정 기준

본 연구는 2007년도까지 치매를 주요개념으로 국내 7개 간호학회지와 간호 연구논문 게재가 많은 한국노년학회지에 발표된 문헌을 2008년 1월 10일부터 2008년 2월 2일까지 검색하여 수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대한간호학회지, 한국노년학회지, 노인간호학회지, 지역사회간호학회지,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정신간호학회지, 성인간호학회지, 기본간호학회지의 홈페이지 게재논문 중에서 치매, 치매+노인+중재연구를 주요어로 입력하여 자료를 선정 하였고, 분석에는 치매+노인+분석 자료를 참고하였다. 대상논문의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남대 richis DB와 Riss4u DB에서 치매관련 자료를 비교하여 빠진 자료를 보충하여 1차 자료를 선별하였다. 1차 자료 중에서 본 연구논문의 선택기준은 1) 2007년 말까지 게재된 치매관련 논문 104편을 선정 분석하였고, 2) 104편 논문 중 치매노인관련 논문 44편을 선별하여 개념분석을 해 본 후 그 중에서 간호영역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치매노인 간호중재 논문 23편을 다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논문의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내 선행연구를 기초로 치매관련 연구논문 경향분석을 위하여 Choi 등(2000)을 참고로 연도별 게재지, 연구대상, 연구방법으로 나누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두 번째로 치매노인 간호중재 연구 분석을 위하여 Jun(2000), Kim(2005)과 Gu(2006)을 참고로 중재종류, 연구방법, 중재결과 별로 빈도, 백분율, 평균을 구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치매관련 연구논문 경향

1) 연도별 게재지

치매관련 연구논문 수는 1995년 이전에는 전체 104건중에서 5건(4.8%)에 불과하였으나, 1996-2000년에는 35(33.7%)건, 2001-2005년에는 54(51.9%)건으로, 1996년 이후 양적인 증가가 있었다. 학회지 게재건수는 한국노년학회지, 대한간호학회지, 노인간호학회지,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순이었다. 또한 2000년도 이전에는 대한간호학회지와 그 분과학회지에 주로 게재되었으나, 2001년 이후 노년학회지의 게재건수가 증가 되었고, 기

<Table 1>Frequencies in Year

Year	JKAN N(%)	JKGS N(%)	JKGN N(%)	JKACHN N(%)	JKAPHN N(%)	JKAPMHN N(%)	JKAAN N(%)	JKFN N(%)	Total N(%)
1995 before	2(40.0)	2(40.0)	0	0	1(20.0)	0	0	0	5(4.8)
1996-2000	8(22.9)	1(2.9)	7(20.0)	5(14.3)	4(11.4)	6(17.1)	4(11.4)	0	35(33.7)
2001-2005	10(18.5)	15(27.8)	6(11.1)	10(18.5)	4(7.4)	3(5.6)	3(5.6)	3(5.6)	54(51.9)
2006 after	1(10.0)	7(70.0)	2(20.0)	0	0	0	0	0	10(9.6)
Total	21(20.2)	25(24.0)	15(14.4)	15(14.4)	9(8.7)	9(8.7)	7(6.7)	3(2.9)	104(100.0)

JKA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KG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JKGN: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JKACH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JKAPH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JKAPMH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JKAA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JKFN: Journal of Korean Fundamentals of Nursing

본간호학회지에는 드물게 게재되었다(Table 1).

2) 연도별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1995년도 이전에는 가족원에 대한 연구가 5(4.8%)건 있었을 뿐이지만, 1996-2000년에는 치매노인 17(48.6%)건 간호제공자 11(31.4%)건이고, 2001-2005년에는 치매노인 23(42.5%)건 간호제공자 21(38.9%)건으로, 1996년 이후로 치매노인과 간호제공자인 가족원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되었다. 연구대상 중 치매노인은 1996-2000년에는 시설과 병원입원 치매노인이 11(31.4%)건과 3(8.6%)건으로 주로 많았으나,

2001-2005년에는 시설입원 8(14.8%)건, 시설내원 3(5.6%)건, 복지관 내원 2(3.7%)건, 재가노인 6(11.0%)건으로 시설과 복지관 내원 대상자와 재가 치매노인에 대한 연구도 증가되었다. 치매노인 간호제공자는 가족원에 대한 연구가 주로 많았다. 전체 치매관련 연구 104건 중에는 치매노인은 44(42.3%)건, 간호제공자는 41(39.4%)건, 환경은 4(3.8%)건 순 이었다(Table 2).

3) 연도별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1995년 이전에는 양적연구 4(80.0%)건, 질적연구 1(20.0%)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6-

<Table 2>Frequencies of Research Samples in Year

Contents N(%)	1995 before N(%)	1996-2000 N(%)	2001-2005 N(%)	2006 after N(%)	Total N(%)	
The aged dementia	Nursing facility	0	11(31.4)	8(14.8)	21(20.2)	
	Hospital admission	0	3(8.6)	4(7.4)	7(6.7)	
	Day care in facility	0	2(5.7)	3(5.6)	7(6.7)	
	Day care in welfare center	0	0	2(3.7)	2(1.9)	
	Home	0	1(2.8)	6(11.0)	7(6.7)	
Subtotal	0	17(48.6)	23(42.5)	4(40.0)	44(42.3)	
Nursing caregiver	Family caregiver	5(100.0)	10(28.6)	20(37.0)	4(40.0)	39(37.5)
	Nursing profession	0	1(2.9)			1(1.0)
	Female volunteer	0		1(1.9)		1(1.0)
Subtotal	5(100.0)	11(31.4)	21(38.9)	4(40.0)	41(39.4)	
Other	Environmental research & review			3(5.6)	1(10.0)	4(3.8)
	Instrument analysis & review		1(2.9)	1(1.9)		2(1.9)
	Cost analysis & review		2(5.7)			2(1.9)
	Welfare review		1(2.9)			1(1.0)
	Other		3(8.6)	6(11.1)	1(10.0)	10(9.6)
Subtotal		7(20.2)	10(18.5)	2(20.0)	19(18.2)	
Total	5(4.8)	35(33.7)	54(51.9)	10(9.6)	104(100.0)	

〈Table 3〉 Frequencies of Research Method in Year

Research method N(%)	Research design N(%)	1995 before N(%)	1996-2000 N(%)	2001-2005 N(%)	2006 after N(%)	Total N(%)
Quantitative research	Nonexperimental research	3(60.0)	14(40.0)	31(57.4)	5(50.0)	53(51.0)
	Experimental research	1(20.0)	10(28.6)	13(24.1)	2(20.0)	26(25.0)
Qualitative research	Phenomenological research	1(20.0)	5(14.3)	3(5.6)	1(10.0)	
	Ground theory method	0	1(2.9)	3(5.6)	1(10.0)	16(15.4)
	Ethnography	0	0	0	1(100.0)	
Other		0	5(14.3)	4(7.4)	0	9(8.6)

2000년에는 비실험연구가 14(40.0%)건, 실험연구가 10(28.6%)건, 질적연구 6(17.2%)건이었고, 2001-2005년에는 비실험연구가 31(57.4%)건, 실험연구가 13(24.1%)건, 질적연구 6(11.2%)건이었고, 2006이 후에는 비실험연구 5(50.0%)건, 실험연구 2(20.0%)건, 질적연구 3(30.0%)건이었다. 전체 연구 104건 중에서는 비실험연구는 53(51.0%)건, 실험연구는 26(25.0%)건, 질적연구는 16(15.4%)건 순으로 양적연구가 주로 많았고, 그 중에는 비실험연구가 주로 많았다(Table 3).

2. 치매노인 중재연구

1) 중재종류

중재방법으로는 단일 치료적 요법 10(43.5%)건 중에는 음악요법 4(40.0%)건, 빛치료 2(20.0%)건, 원예요법2(20.0%)건, 라벤다 손마사지 등이 있었으며, 고전 치료적 요법 5(21.7%)건 중에는 회상요법, 인정요법, 인지지각요법, 행동수정요법 등이 있었다. 그 외에 민속 놀이나 음악을 활용한 치료적 레크레이션 요법이 2(8.7%)건 있었고, 복합 치료적 프로그램 6(26.1%)건 중에는 치매 간호중재와 신체적 활동 및 율동적 동작 프로그램 등이 있었다(Table 4).

2)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Table 4〉 Intervention Methods

Intervention methods	Independent variables (N)	N(%)	Total N(%)
Single therapeutic methods	Music therapy(4)	4(40.0)	10(43.5)
	Light therapy(2)	2(20.0)	
	Horticultural therapy(2)	2(20.0)	
	Lavender hand massage(1)	1(10.0)	
	Hand massage(1)	1(10.0)	
Traditional therapeutic methods	Reminiscence therapy(2)	2(40.0)	5(21.7)
	Validation therapy(1)	1(20.0)	
	Cognitive perception(1)	1(20.0)	
Therapeutic recreation methods	Behavior modification(1)	1(20.0)	2(8.7)
	Folk play program(1)	1(50.0)	
Complex therapeutic program	Therapeutic recreation with music(1)	1(50.0)	6(26.1)
	Nursing intervention program(2)	2(33.3)	
	Physical activities program(2)	2(33.3)	
	Movement & exercise program(1)	1(16.7)	
Total N(%)	Day care program(1)	1(16.7)	23(100.0)

〈Table 5〉 Research Design

Research design	1996-2000	2001-2005	2006 after	Total N(%)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3(33.1)	5(38.5)	1(100.0)	9(39.1)
One group time series design	2(22.2)	4(30.8)	0	6(26.1)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4(44.4)	4(30.8)	0	8(34.8)
Total N(%)	9(39.1)	13(56.5)	1(4.3)	23(100.0)

연구설계는 1996년도 이후로 실험설계 방법이 9건 (39.1%) 있었으나, 원시실험설계인 단일군 연구설계가 대조군을 설정한 비동등성 대조군 유사실험 설계보다 많았다. 전체 23건 중에는 단일군 시차설계 9(39.1%)건,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 8(34.8%)건, 단일군 반복 시차설계 6(26.1%)건 순으로 대조군을 설정한 유사 실험 연구는 8건으로 34.8%에 불과하였다(Table 5).

(2) 대상자 수, 중재시간과 중재빈도

실험군의 대상자 범위는 7-47명으로 평균 16.6명을 실험군으로 설정하였다. 대조군의 범위는 0-15명으로 평균 13명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전체 23건 중 실험군이 10명 미만은 7(30.4%)건, 10-20명 미만인 경우는 9(39.1%)건, 20명 이상인 경우는 7(30.4%)건이었다. 대조군에서는 전체 8건 중에서 10명 미만인 경우는 2(25.0%)건, 10-20명 미만은 5(62.5%)건, 20명 이상은 1(12.5%)건 이었다.

중재시간은 1회 수행시간은 10-120분 범위에 있었고, 그 중 1회 수행시간이 제일 긴 경우는 빛 요법으로 120분, 간호중재 프로그램은 90분, 음악활용 레크레이션은 60분, 회상요법 60분 이었다. 주당 중재빈도는 1-18회의 범위에 있었고, 그 중에서 음악요법 중 1건은 하루 3회씩 수행으로 최고 주당 18회까지 수행하였고, 빛요법, 라벤다 손마사지 등의 순으로 주당 횟수가 많았

다. 총 중재빈도는 전체 4-72회 범위에 있었고, 이 중에서 음악요법 1건이 72회로 총 중재 횟수가 많았고, 손마사지요법, 회상요법, 인정요법은 총 횟수가 10회 이하인 경우도 있었다(Table 6).

3) 중재결과

중재결과로는 정신심리적 변수인 인지기능이 15 (100.0%)건 중에서 8(53.3%)건이 유의한 결과로 보고되었고, 치매행동 관련 변수는 전체 13(100.0%)건 중에서 10(76.9%)건이 유의하였고, 정서는 6(100.0%)건이 모두 유의하였고, 그 외에는 우울, 자존감 순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신체적인 변수로는 일상활동 수행능력은 5(100.0%)건 중 4(80.0%)건이 유의하였고, 신체적 기능, 생리적 지표, 인체 활력징후, 수면 등이 있었다. 사회적 변수는 사회적 행동이 1(100.0%)건 유의하였다 <Table 7>.

IV. 논 의

노인성 치매는 가령과 함께 발견빈도가 높은 뇌의 질환으로 생기는 하나의 증후군으로 대개 만성적이고 진행성이며, 발병 후 비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원인이나 유발요인이 규명되지 않았으며, 특별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커다란 건강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치매정

(Table 6) Sample Size, Intervention Time and Frequency

Independent variables (N)	Sample size N		Intervention time and frequency N		
	실험군	대조군	분/회	회/주	회/총
Music therapy(4)	7-37	0-10	30-40	2-18	32-72
Light therapy(2)	8-11	0-13	120	7	14-20
Horticultural therapy(2)	7-23	0	-	1-14	12-46
Lavender hand massage(1)	20	21	10	6	12
Hand massage(1)	47	0	10	4	4-8
Reminiscence therapy(2)	8	8-10	60	1-5	6-20
Validation therapy(1)	14	15	30-40	5	10
Cognitive perception therapy(1)	9	0	50	3	24
Behavior modification(1)	8	0	-	3	21
Folk play program(1)	15	18	40	5	20
Therapeutic recreation with music(1)	14	0	60	1	16
Nursing intervention program(1)	18	0	90	2	16
Nursing intervention program(1)	18	0	90	2	16
Physical activities program(1)	26	0	60	6	18
Physical activities program(1)	26	0	60	5	15
Movement & exercise program(1)	10	10	50	3	48
Day care program(1)	13	0	-	-	32주
Total range N (Medium)	7-47 (16.6)	0-15 (13)	10-120	1-18	4-72

(Table 7) Dependent Variables

Section	Dependent variables	Significant N(%)	Partial significant N(%)	Non significant N(%)	Total N(%)
Psychosocial variables	Cognitive function	8(53.3)	0	7(46.7)	15(100.0)
	Dementia behavior	10(76.9)	0	3(23.1)	13(100.0)
	Emotion	6(100.0)	0	0	6(100.0)
	Depression	3(50.0)	0	3(50.0)	6(100.0)
	Self esteem	2(66.7)	0	1(33.3)	3(100.0)
	Life satisfaction scale	1(100.0)	0	0(0.0)	1(100.0)
Physical variables	ADL	4(80.0)	0	1(20.0)	5(100.0)
	Physical function	2(66.6)	1(33.3)	0	3(100.0)
	Physiologic index	0	1(100.0)	0	1(100.0)
	Vital sign	0	2(100.0)	0	2(100.0)
	Sleep	0	2(66.7)	1(33.3)	3(100.0)
	Personal hygiene	0	1(100.0)	0	1(100.0)
Social variables	Social behavior	0	0(0.0)	1(100.0)	1(100.0)

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상생활 동작이나 기능의 손상으로 타인 의존도가 높아지므로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의료인들의 책임과 부담이 큰 질환이다(Hong, Lee, Park, Cho, & Oh, 1994). 그러나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하면 증상의 완화나 호전을 기대 할 수 있으므로 치매환자를 위한 중재개발이 절실하다(Kim, Yoo, & Han, 2000). 본 결과에서 치매와 치매노인 간호중재 연구는 1996년 이후로 양적인 향상이 있었으나 차후 연구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였던 바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치매관련 연구논문 수는 1995년 이전에는 전체 104건 중에서 5건(4.8%)에 불과하였으나, 1996-2000년에는 35(33.7%)건, 2001-2005년에는 54(51.9%)건으로, 1996년 이후부터 양적인 증가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연구 분석에서 1990년도 이전까지 약 30년 동안 노인 연구가 32편이었지만(Jun & Park, 1992), 1991-1997까지 약 7년간의 분석에서는 127편에 달하는 많은 증가를 보였다(Lee et al., 1998)고 한 결과와 비교할 때, 치매관련 연구는 노인관련 연구보다 연도별로 늦은 시기인 1996년 이후에야 관심과 연구가 증가되기는 하였지만, 1996년도와 2000년 이후 꾸준한 양적증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회지 게재건수는 2000년 이전에는 대한간호학회지와 분과학회지에 주로 게재되었으나, 2001년 이후 노년학회지의 게재건수가 증가되었다. 이는 보건학 관련 노년학회지는 간호학 관련 학회지보다 치매관련 연구는 더늦게 게재되었으나,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어 관련논문 게재 건수가 더 증가되었을 것이며, 아울러 간호계

외의 치매연구 증가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간호계의 박사학위 논문 등이 국외잡지에 게재되는 경우가 늘면서 그 수가 줄었을 수도 있으므로, 차후 학위논문 등을 포함한 추세분석을 해 볼 과제로 여겨졌다.

본 연구결과의 연구대상자는 1996년 이후로 연구건수가 꾸준히 증가되었으며, 2000년 이전에는 시설과 병원 입원 대상자가 주로 많았으나, 2001년 이후에는 시설내원과 복지관내원 및 재가 치매노인 연구도 증가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치매노인 44(42.3%)건, 간호제공자 41(39.4%)건, 환경4(3.8)건 순 이었다. 이는 노인 연구 분석에서 노인대상 비율이 Kim(2005)은 84.1%로, Wang 등(2004)은 94.3%, Jun과 Park(1992)의 68.8%로 보고한 것보다는 낮은 비율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Lee 등(1998)이 노인치매 연구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지만, 가족들의 부담감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많다고 한 것처럼, 치매관련 연구는 치매노인도 중요하지만, 가족원은 간호제공자로서의 책임과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관련 연구도 많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본 결과에서 치매노인과 가족원 외의 연구가 드물다는 것을 볼 때 추 후 간호전문인을 비롯하여, 인적환경과 물리적 및 사회적 환경 등으로 연구대상을 다양화 할 필요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 1996년도 이후로 양적연구가 주로 많이 증가되었으나, 실험연구와 질적연구도 꾸준한 수적 증가가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비실험연구 51.0%, 실험연구 25.0%, 질적연구 15.4%, 기타 8.6%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연구 분석에서 Yang 등(2004)은 양적연구 77.6%로 비실험연구 54.4%, 실험연구 23.2% 순이었

고, Lee 등(1998)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적연구가 80.3%로 비실험연구 66.1%, 실험연구 14.2%, 질적연구 8.7%를 나타내었던 결과와는 비율이나 순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양적연구가 많은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결과의 비실험연구가 주로 많다는 점에서 볼 때 차후 치매연구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도구개발 및 검증, 트라이앵글레이션과 같은 다원론적 접근법, 지식체 개발을 위한 모델개발 등에도 관심을 보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치매노인의 간호중재는 단일 치료적 요법 10(43.5%)건 중에는 음악요법 4(40.0%)건, 빛치료 2(20.0%)건, 원예요법 2(20.0%)건이 있었으며, 고전 치료적 요법 5(21.7%)건 중에는 회상요법, 인정요법, 인지지각 요법, 행동수정요법 등이 있었다. 그 외에 민속 놀이나, 음악을 활용한 치료적 레크레이션 요법이 2(8.7%)건 있었고, 복합 치료적 프로그램 6(26.1%)건 중에는 치매 간호중재와 신체적 활동 및 율동적 동작 프로그램 등이 활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연구 분석에서 Kim 등(2002)이 치매중재로 음악요법, 인정요법, 회상요법을 언급하였던 바와 맥이 같았다. 그러나 그는 노인 간호중재 종류는 1990년 초반에는 회상요법, 이완요법, 인지요법, 동공예작업 등이 많았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운동을 비롯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였고, Kim(2005)은 46편의 실험연구에서 26가지 간호중재를 제시하고, 그 중 운동 율동이 가장 많았다고 하였으나, 이들이 제시한 다양한 결과와 본 치매노인 간호중재와는 우선순위나 종류가 서로 달랐다. 그러나 본 결과는 노인선행연구와는 그 수도 적고, 종류가 다르기는 하지만 현재 단일 간호중재 단계를 넘어서서 음악, 미술, 원예, 운동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프로그램으로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차 후 반복연구와 메타분석 등을 통하여 치매노인의 문제에 적합한 간호중재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과제로 여겨졌다.

본 결과에서 연구방법은 1996년도 이후에 실험연구가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원시실험연구방법인 단일군 시차설계가 주로 많았고, 대조군을 설정한 유사실험 설계는 전체 중재연구 23건 중 8(34.8%)건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15(65.2%)건은 단일군 설계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를 노인 중재 연구와 비교해 볼 때 Kim(2005)은 46편의 실험연구에서 33편(71.7%)을 비동등성 대조군 전 후 설계라 하였고, Jun(2000)은 51편의 운동중재 연구 분석에서 66.7%가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

로 구성되었다는 결과와 비교 할 때, 본 분석논문들은 무작위와 통제가 안 된 단일군 연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Moon(1997)은 유사 실험설계는 덜 통제된 상황에서 인과관계를 검증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며, 순수 실험설계가 갖추어야 하는 3가지 조건 중 통제나 무작위가 안 된 설계이며, 조작화만 갖춘 설계를 원시실험설계라 하였고, 일반적으로 실험연구 이전 단계에서 주로 하는 연구라고 하였으므로, 중재연구 계획 시에 조작화와 통제와 무작위를 고려한 설계에 관심을 기울여 검정력이 향상된 연구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실험군은 전체 7-47명 범위로 평균 16.6명이었고, 대조군을 설정한 경우는 전체연구 23건 중에서 8(34.8%)건에 불과하였고, 범위는 0-15명으로 평균 13명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전체연구 중 실험군을 10명 미만으로 설정한 경우는 7(30.4%)건, 10-20명 미만 9(39.1%)건, 20명 이상은 7(30.4%)건이었다. 대조군을 설정한 8건의 연구 중에서는 10명 미만 2(25.0%)건, 10-20명 미만 5(62.5%)건, 20명 이상 1(12.5%)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Lee와 Lee(2008)는 cohen's power analysis에 따라 2그룹에서 유의수준 $\alpha=0.05$ 이고, 효과크기(effect size)를 크게 ($f=0.4$)하고, 검정력(power value)을 0.70으로 하면 표본수가 20명으로 나온다는 근거에 의거하여 볼 때 본 대다수 연구의 대상자 설정 숫자가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Moon(1997)은 유사 실험연구와 실험연구는 서술연구와 상관관계연구보다 작은 표본을 사용하며, 통제가 증가됨에 따라 표본크기는 줄어들고 특성이 모집단에 가까워지지만, 표본크기는 제 2종 오류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용할 만한 검정수준을 갖기에 충분해야한다(Kraemer & Thiemann, 1987)고 하였다. 그러므로 연구 설계과정에서 연구의 대상자인 표본크기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하겠고, 또한 본 연구결과 중에는 표본의 크기 산정과정을 제시한 연구가 거의 없었으므로, 논문의 검정력 향상을 위하여 표본크기 산정과정도 제시할 필요도 있었다. 본 결과에서 중재기간은 1회 수행시간은 10-120분 범위에 있었고, 주당 중재빈도는 1-18회의 범위에 있었다. 총 중재빈도는 전체 4-72회 범위였다. 본 연구에서 중재시간이나 중재빈도인 주당횟수, 총 횟수 등에서 선행연구 등에 의한 적합한 근거제시를 못한 경우가 주로 많았으므로, 반복연구와 메타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중재 연구방법을 제시해야하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재결과는 정신심리적 변수인 인지기능은 8(53.3%)건이 유의하였고, 치매행동 관련 변수는 10(76.9%)건이 유의하였고, 정서는 6(100.0%)건 모두 유의하여서 치매행동과 정서에 대한 유의성을 보고한 논문이 70%이상으로 많았고, 그 외에는 우울, 자존감이 사용되고 있었다. 신체적인 변수로는 일상활동 수행능력은 4(80.0%)건이 유의하다고 하였고, 신체적 기능, 생리적 지표, 수면 등이 사용되고 있었다. 사회적 변수로는 사회적행동이 1(100.0%) 건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연구에서 Kim 등(2002)이 치매를 주제로 한 연구는 음악요법, 인성요법과 같은 간호중재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치매행동, 정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였으나 아직 중재논문 수가 적어서 중재요법 종류별로 결과 변수의 효과 비교가 어려웠으므로 차후 반복연구가 필요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7년 말까지 7개 간호학회지와 한국노년학회지에 발표된 문헌을 분석하여 치매와 치매노인 간호중재 연구경향을 발견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2008년 1월 10일부터 2008년 2월 2일까지 8개 학회 홈페이지 자료를 검색하여 치매관련 논문 104편과 치매노인 간호중재 결과 23편을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매관련 연구논문 경향은 다음과 같다.

- 1) 전체 논문 104건 중에서 치매관련 연구논문 수는 1996년 이후부터 양적인 증가가 있었다. 학회지 게재건수는 2000년도 이전에는 대한간호학회지와 그 분과학회지에 주로 많았으나, 2001년 이후에는 노년학회지 게재건수가 증가 되었다.
- 2) 연구대상은 1996년 이후로 치매노인과 가족원의 연구건수가 꾸준히 증가되었으며, 2000년 이전에는 시설거주와 병원입원 치매노인에 대한 연구가 40%로 주로 많았으나, 2001년 이후에는 시설과 복지관 내원 대상자와 재가 치매노인에 대한 연구도 증가되었다. 전체적으로 연구대상은 주로 치매노인과 가족원이었고, 간호전문인, 환경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 3) 연구방법은 1996년 이후로 양적연구가 주로 많이 증가되었고, 실험연구와 질적연구도 꾸준한 수적 증가가 있었으나, 도구개발 및 검증, 모델개발, 트

라이언플레이션과 같은 방법론적 다양화 등은 매우 드물었다.

2. 치매노인 간호중재 연구경향은 다음과 같다.

- 1) 중재종류는 단일 치료적 요법 10(43.5%)건 중에는 음악요법, 빛치료, 원예요법 등이 있었으며, 고전 치료적 요법 5(21.7%)건 중에는 화상요법, 인성요법, 인지적각요법, 행동수정요법 등이 있었다. 그 외에 민속놀이, 음악을 활용한 치료적 레크레이션요법이 2(8.7%)건 있었고, 복합 치료적 프로그램 6(26.1%)건 중에는 치매 간호중재와 신체적 활동 및 운동적 동작 프로그램 등이 활용되고 있었다.
- 2) 연구방법은 1996년 이후 실험연구가 적용되었으나, 원시실험 설계인 단일군 시차설계가 많았고, 비동등성 대조군 전 후 유사 실험설계는 전체 23건 중 8(34.8%)건에 불과하였다.
- 3) 대상자 범위는 실험군은 7-47명으로 평균 16.6명을, 대조군은 전체 0-15명으로 평균 13명을 선정하였고, 중재기간은 1회 수행시간은 10-120분 범위이고, 주당 중재빈도는 1-18회의 범위이며, 총 중재빈도는 전체 4-72회 범위에 있었다.
- 4) 중재결과는 정신심리적 변수인 인지기능은 15(100.0%)건 중 8(53.3%)건이 유의하였고, 치매행동 관련 변수는 13(100.0%)건 중 10(76.9%)건이 유의하였고, 정서는 6(100.0%)건 모두 유의하였고, 그 외에는 우울, 자존감 등이 사용되고 있었다. 신체적인 변수로는 일상활동 수행능력은 4(80.0%)건이 유의하다고 하였고, 신체적 기능, 생리적 지표, 수면 등이 사용되고 있었다. 사회적 변수로는 사회적 행동이 1(100.0%)건 유의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치매나 치매노인 간호중재 연구는 1996년 이후로 양적인 향상이 있었으나 차후 연구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추후 학위논문과 관련논문을 더 포함한 치매노인과 가족원에 대한 분석적 연구가 필요하다.
2. 추후 연구설계 방법별로 다양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3. 치매 중재연구의 종류와 방법별로 추후 메타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연구방법과 연구결과 규명이 필요하다.

References

- Alzheimer's Association. (2008, June, 19). *The basics of alzheimer's disease*. from http://www.alz.org/alzheimers_disease_what_is_alzheimers.asp.
- Byun, Y. C., Han, Y. J., Lee, S. H., Park, J. H., Woo, J. I., & Lee, J. H. (1997). *Studies of dementia mapping development*.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Choi, K. S., Song, M. S., Hwang, A. R., Kim, K. H., Jung, M. S., Shin, S. R., & Kim, N. C. (2000). The trends of nursing research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0*(5), 1207-1218.
- Elizabeth, E. (2006). Improving the management of dementia. *British Medical Journal, 332*, 681-682.
- Gu, M. O. (2006). A review of research on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Korean adult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3*(1), 17-34.
- Hong, Y. S., Lee, S. J., Park, H. A., Cho, N. O., & Oh, J. J. (1994). A study on risk factors for senile dementi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4*(3), 448-460.
- Jun, J. I. (2000). The analysis of exercise therapy in nursing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0*(2), 319-330.
- Jun, M. H., & Park, H. O. (1992). The trend of gerontological nursing researches in Korea. *Journal of Suwoon Woman's College of Nursing, 18*, 95-126.
- Kraemer, H. C., & Thiemann, S. (1987). *How many subject? Statistical power analysis in research*. Newbury Park California: Sage.
- Kim, C. G. (2004). An analysis of research reported in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999-2003-.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6*(1), 81-90.
- Kim, C. G. (2005). An analysis of gerontological nursing researches in Korean, 1999-2004.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7*(2), 125-135.
- Kim, J. S. (1999). A critical review and visim of family caregiving research on the demented elderly's in public of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6), 1419-1432.
- Kim, M. A., Kim, S. N., Jang, H. J., Oh, Y. J., Kim, H. O., Park, E. A., Park, C. H., Song, K. S., Yoon, M. O., Lee, Y. M., Lee, R. J., Jung, K. I., & Choi, Y. H. (2002). An analysis of research reported in Korea from 1991-2000 on the Health of Elder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4*(1), 59-70.
- Kim, N. C., Yoo, Y. S., & Han, S. W. (2000). Effect of Reminiscence with Audio-Visual Stimulation on Senile Dementi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0*(1), 98-109.
- Lee, H. Y., & Lee, K. J. (2008). Effects of Tai chi exercise in elderly with knee osteoarthriti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1), 11-18.
- Lee, Y. R., Kim, S. M., Park, H. O., Park, H. M., Cho, G. H., & Ro, Y. J. (1998). The trend and issues of the gerontological nursing study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8*(3), 676-694.
- Moon, J. S. (1997). *Nursing research*. Seoul: Shinkwangpub co.
- National institute on aging. (1990). *Special report on aging*. Washington DC in U. S.: D H H S publicati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 Park, J. H. (2004). Early diagnosis of dementi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25*, 653-660.
- The Korean association for dementia. (2008, June, 17). *what is dementia*. from http://www.silverweb.or.kr/html/ml_03.asp.
- Wang, M. J., Park, Y. M., Lee, M. H., Chang, K. W., Lee, K. J., Chun, S. H., Lee, J. Y., Yu, K. H., & Jeong, T. O. (2004). Analysis

of trend in gerontological nursing researches in Korea -Focused on community nursing journ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5(2), 228-236.

Yang, K. M., Kim, S. R., & Park, J. S. (2004). Analysis of gerontological nursing researches in Korea from 1997 to 2003.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5(3), 419-436.

- Abstract -

A Review of the Trends of Journal Research on Dementia and Nursing Interventions for Demented Elders

Roh Kook He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research trends and show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studies on dementia and nursing interventions for demented elders.

Methods: This study analyzed 104 articles on dementia and 23 on nursing interventions for

demented elders published until 2007. **Results:** These dementia studies increased in quantity after 1996, mainly in studies on demented elders and their families and in quantitative studies. Nursing intervention methods were music, light, horticultural therapy, reminiscence and complex therapeutic program, etc. There were experimental studies after 1996, but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was 8(34.8%) of 23(100.0%). The medium sample size was 16.6 for experimental groups, 13 for control groups. The experimental time range was 10-120 minutes a day, frequency was 1-18 a week, and the total frequency was 4-72. The result variables were cognitive function, dementia behavior, emotion, depression, ADL, social behavior, etc.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review suggest that studies on dementia have been improved in quantity since 1996, but various and effective research methods should be developed as a way to further improve the quality of studies.

Key words : Review, Aged, Dementia, Intervention Studies

* A Member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Previous Prof. KunSan College of Nursing